

일반활동

창립 이래 편협이 벌여온 활동은 크게 국내활동과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한 대외활동으로 나누어진다. 국내활동은 한국 언론의 발전과 그 창달을 위한 것으로 요약될 것이다. 여기에는 언론자유 수호와 그 신장을 위한 악법반대투쟁과 보도자유 확립 및 언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이 밖에 편협은 그 창립시기와 시대적 배경 때문에 언론과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다. 신문주간의 제정, 신문윤리위원회의 창설, 신문연구소 설치 등의 일반활동이다.

1) 신문주간 설정과 신문의 날 제정

신문주간은 1957년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을 맞아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해 설정되었다. 편협창립총회는 고 서재필(徐載弼) 박사에 의해 창간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정신을 기리고 나아가서 모든 신문인의 자성의 계기가 될 것을 염원하는 뜻에서 매년 4월 7일부터 1 주간을 신문주간으로 설정했다.

신문의 날은 1959년 4월 6일 제3회 신문주간대회(편협 주관)의 결의에 의해 제

정되었다. 이에 앞서 이해 3월 31일 각 신문 통신 편집국장 회의에서 독립신문 창간 일인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제정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신문주간대회는 이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제1회 신문의 날을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이 되는 1957년 4월 7일로 소급할 것을 결의했다.

신문의 날은 독립신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언론인들의 근로환경 개선의 의미도 있었다. 당시 일간신문과 통신사 종사자들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연중 무휴 조석간 발행이라는 무리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었다. 1월 1일 단 하루만을 제외하고는 국경일도 일요일도 없는 중노동이었다.

이 문제를 논의해 온 끝에 1959년 3월 31일 각 신문사 통신사 편집국장들이 모여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제정하고 그 날을 「신문 없는 날」로 하자는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4월 7일은 전국의 신문 통신을 휴간하며 신문의 날 행사는 4월 6일에 갖도록 한국일간신문 발행인협회와 한국통신협회에 건의한다」고 결의했다.

이러한 건의가 양 협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1959년 4월 6일 시공관에서 개최된 제3회 「신문주간」 대회서는 「신문의 날」을 4월 7일로 선포하고 그날은 신문 통신을 발간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1957년과 1958년 신문주간 행사는 신문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렸으나 1959년 제3회 대회부터는 신문발행인협회와 통신협회가 공동참여를 했으며 그 해의 행동 목표 실천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매년 슬로건을 발표했다.

1965년 제9회 행사부터는 「신문의 날」과 「신문주간」기념대회를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신문발행인협회, 한국통신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4개 단체 공동으로 개최해 왔으며 1980년 언론기관 통폐합으로 통신협회가 해체된 이후에는 통신협회를 제외한 3단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신문의 날 슬로건>

1959년부터 해마다 언론인들의 행동목표로 정해진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제1회	1957	-
제2회	1958	-
제3회	1959	언론의 자유
제4회	1960	악법의 철폐
제5회	1961	신문의 책임
제6회	1962	신문의 품위
제7회	1963	신문의 독립
제8회	1964	신문의 공정
제9회	1965	신문의 성실
제10회	1966	신문의 긍지
제11회	1967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자
제12회	1968	신뢰받는 신문
제13회	1969	신문의 자주
제14회	1970	나라와 거래와 함께 뺏는 신문
제15회	1971	신문인의 단결
제16회	1972	신문인의 양식
제17회	1973	-
제18회	1974	신문의 사명
제19회	1975	-
제20회	1976	국민복지에 앞장서는 신문
제21회	1977	-
제22회	1978	독자에 봉사하는 신문
제23회	1979	독자가 참여하는 신문
제24회	1980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제25회	1981	시대를 이끄는 신문
제26회	1982	품격과 신의를 지키는 신문

제27회	1983	언론의 국제화
제28회	1984	현대화를 다지는 언론
제29회	1985	독자의 사랑을 받는 신문
제30회	1986	화합을 다지는 신문
제31회	1987	바른 신문 밝은 사회
제32회	1988	자유경쟁시대의 신문
제33회	1989	자율과 책임과 화합
제34회	1990	책임 있는 신문, 신뢰받는 신문
제35회	1991	자정으로 신뢰회복, 자율로 책임완수
제36회	1992	사회에는 정의를 독자에게 신뢰를 책임 있는 보도, 사랑받는 신문 신문의 특성화, 기자의 전문화
제37회	1993	기자는 自淨노력, 보도는 公正노력
제38회	1994	정직하게 만든 신문, 밝은 미래 약속한다. 자율로 크는 신문, 세계로 뻗는 신문
제39회	1995	세계를 읽는 신문, 미래를 보는 국민
제40회	1996	자유로운 언론 책임 있는 신문
제41회	1997	흔들리지 않는 언론 백리 길은 튼튼
제42회	1998	자성하는 언론 믿음 주는 정론, 미래를 읽는 신문, 21세기를 개척한다.
제43회	1999	새로운 천년 신문과 함께
제44회	2000	펼친 신문, 열린 미래
제45회	2001	언론자유 소중하게 공정보도 책임 있게
제46회	2002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신문, 신뢰받는 언론
제47회	2003	독자에게 떳떳하고 역사 앞에 당당한 언론
제48회	2004	국민의 소리로, 세상의 빛으로
제49회	2005	독자 앞엔 등불처럼 세상 앞엔 거울처럼
제50회	2006	언론도약의 반세기 독자와 함께 미래로

여기서 밝혀둘 것은 1987년까지 31회의 「신문주간」을 보내면서 제1회와 제2회, 그리고 17회, 19회, 21회 때 신문주간 슬로건이 빠진 이유이다. 1957년도 제1회와 1958년도 제2회 행사는 협회 창립 초기이므로 준비관계상 슬로건 없는 기념행사에 그쳤고 「신문의 날」과 「신문주간」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9년 제3회부터였다.

1973년 제17회와 1975년 제19회 1977년 제21회 대회는 견해를 달리하는 협회 간의 불협화음, 특히 「동아 조선 사태」를 둘러싸고 발행인협회, 편협, 記協의 이견이 노출되어 기념대회를 열지 못했다.

2)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제정

신문윤리강령은 1957년 4월 7일 편협창립총회에서 채택 결의함으로써 제정되었다. 강령의 제정이 처음 발의되기는 신문주간을 설정하기 위해 구성된 신문주간준비위원회에서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신문주간을 설정함에 있어 신문의 본질적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그 자유와 책임에 관한 규범을 밝힐 필요를 느꼈다. 위원회는 강령의 기초를 천관우(千寬宇)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위촉했고, 초안을 이관구(李寬求) 설국환(薛國煥) 천관우(千寬宇)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자구수정을 하여 확정시켰다. 그리고 준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강령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명의로 채택되었다.

이 강령은 1961년 8월 3일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및 통신협회, 1963년 3월 5일에는 한국신문발행인협회, 1964년 8월 17일에는 한국기자협회가 각각 추가 채택했다.

이어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1961년 7월 30일 편협 제7회 임시총회에서 채택, 제정했다. 실천요강은 편협 제3차 운영 보도자유위 연석회의의 결정에 따라 千寬宇 서울일일신문 주필이 기초,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및 한국통신협회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천요강은 1961년 8월 3일에 전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한국통신협회가, 1963년 3월 5일에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1964년 8월 17일에 한국기자협회가 각각 추가 채택했다.

신문윤리강령은 1996년 개정됐다. 편협은 1995년 6월 신문협회,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위원장 박권상)'를 구성, 10차례에 걸친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1996년 2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새 윤리강령은 언론의 책임을 새삼 강조했다며, 규제대상을 종전의 28개 부문에서 60개 부문으로 확대시킨 점이 특징이다.

개정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정기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새 윤리강령은 취재원을 명시할 것과 언론인의 품위유지 기능을 강화한 것, 취재 자체의 윤리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3) 한국신문회관 설립과 재설립 추진

한국신문회관은 언론인 및 언론단체 상호간의 유대강화, 언론창달, 국민문화 향상을 위한 운영체로서 고재욱(高在旭) 편협회장 등 언론기관 단체 대표자 26명이 발기해 1962년 5월 3일 설립됐다.

편협은 1959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 건립을 발의하고 4·19로 신축공사가 중단된 서울신문 사옥을 회관으로 결정했다. 협의 끝에 정부가 1,300여만원을 들여 이 건물을 완공해 1962년 5월 한국신문회관에 기증했다.

그러나 1981년 군사정권의 힘에 밀려 재개발이 이뤄지며 한국신문회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빼앗기게 됐다. 언론계는 이를 되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성병욱)는 1998년 4월 6일, 제 42회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한국신문협회(회장 방상훈) 한국기자협회(제 35대 회장 남영진)와

함께 한국신문회관 재설립 추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당시 3개 단체는 “선배 언론인들이 각고 끝에 마련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다 군사 정권의 힘에 밀려 재개발이란 미명아래 소유권과 운영권을 빼앗긴 언론의 전당 ‘한국신문회관’을 언론 3단체 이름으로 다시 설립, 복원하겠다”고 천명했었다.

(1) 한국신문회관 설립

한국신문회관 설립은 1959년 12월 1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발의했다. 회관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협조아래 기존 건물중에 적당한 것을 찾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보내다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서울신문사가 신축중 4·19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사옥이 적절하다고 판단,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정부가 공사를 마무리해 한국신문회관에 이 건물을 기증했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고재욱 회장 등 언론단체 대표 26명은 1962년 5월 3일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을 설립, 1965년 5월 5일 정부로부터 건물을 기증받았다. 당시 건물은 3층 6백평 규모였으며, 대지는 서울신문사 소유였다. 1963년 지하층 2백평을 그릴 다방 기관실 등으로 개축, 총건평이 8백평으로 늘었다. 당시 회관 1층은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됐으며, 2층에는 언론단체들이 입주했다. 또 3층에는 대강당과 회의실, 지하층은 식당 등이 들어섰다.

(2) 한국신문회관 관리 운영

한국신문회관은 1962년부터 1975년까지는 자체수입 이외에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됐다. 1976년부터 1981년까지는 임대료 등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 관리했으며, 각 언론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임원진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사 13인, 감사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원들은 각 언론단체에서 추천했다. 사무국에는 총무부와 관리부를 두었다.

역대 이사장은 1~2대 고재욱, 3대 김종규, 4~6대 방우영, 7대 신범식, 8대 김종

규, 9~10대 홍유선, 11대 홍진기, 12대 이종기였다.

또 입주단체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연구소, 언론인금고, 관훈클럽, 편집·교열·사진기자회, 4·7언론인회, 판매·광고협의회, IPI·PFA 한국위원회 등이었다.

(3) 한국신문회관 건물 양도

‘언론인의 전당’이었던 한국신문회관은 폭압적 언론정책을 구사하던 5공 치하 1981년 6월 사옥과 함께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을 함께 새로 짓겠다는 서울신문사와 문공부의 계획에 따라 이전요청을 받았다.

이에 한국신문회관 이사회는 1981년 8월 신축 한국언론회관에 한국신문회관 입주단체의 무상입주를 보장한다는 주무부서(문공부)의 확약을 받는 조건으로 회관 건물을 감정가(89,198,000원)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한국신문회관 입주 단체들은 건물양도대금 전액을 입주 보증금으로 내고 한국경제신문 별관으로 이전했다.

(4)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건립 배경

서울신문 100년사에 따르면 서울신문 사옥 신축이 처음 거론된 것은 1980년 11월 21일이었다. 문태갑 당시 서울신문 사장과 이우세 당시 서울신문 편집국장이 5공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두환 대통령과 특별단독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서울신문사의 사옥 건립을 건의했던 것이다. 이어 1981년 5월 26일 건립위원회 첫 모임에서 이광표 문공부장관이 프레스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서울신문사 사옥과 프레스센터를 함께 짓게 됐다. 건립위원회는 이광표 문공부장관, 문태갑 서울신문사 사장, 허문도 청와대 제1정무비서관, 이원홍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김성진 연합뉴스 사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 건물은 대지 2,035평에 연건평 1만7,849평 지하 4층 지상 22층(옥탑 2층 포함) 규모이다. 프레스센터는 12층부터 20층까지이다.

(5) 한국언론회관 입주 경위

한국신문회관은 1984년 9월 제 83회 이사회에서 회관의 현금자산 1억5천만원(임대보증금 및 보유자산)을 새로 발족하는 사단법인 한국언론회관의 기본자산으로 출연키로 의결했으며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1984년 11월에는 한국신문회관과 한국언론회관 간의 업무인계 인수규약을 체결했다. 주 내용은 15개 언론단체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한국언론회관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해 공익자금에서 수령, 지원토록 하는 것이었다.

1985년 1월 한국신문회관은 제 83회 이사회 결의와 총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보유자산 1억5천만원과 유화 등 기타자산 전체를 한국언론회관의 기본자산으로 넘겼다. 이어 15개 언론단체가 1985년 3,4월에 한국언론회관에 입주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임대료 및 월 관리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 공익자금에서 이를 지원해 줄 것을 문공부에 건의했다. 이에 문공부는 1985년 5월 29일 한국신문회관 15개 단체의 한국언론회관 입주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공익자금에서 지원토록하고 한국언론회관이 자금 수령을 대행하도록 했다.

(6) 한국언론회관의 문제점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으로 신축했다. 따라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언론회관은 명목상 프레스센터 임대관리권만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 소유여서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프레스센터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한국언론회관은 1984년 11월 출범이후 1991년 공익자금 지원에 의한 건물 관리와 통상적인 연례사업(언론인명록발간 등)만 시행했다. 1991년 하반기 정부지침 변경으로 정부광고대행권이 1992년 국제문화협회에서 한국언론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가용예산 증가로 해외언론인 초청, 국제순회포럼, 지역 언론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었으나 이들은 기존 언론단체(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와 언론관련단체(성곡언론재단 서울언론재단 삼성언론재단 LG상남언론재단)의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7) 한국신문회관 재설립 추진

한국언론회관이 프레스센터 건물 관리와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있고, 정부가 한국언론회관 상근임원의 임면,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 실제적으로 운영에 관여했다. 언론계는 프레스센터가 자율성을 상실한 채 이처럼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데 대해 부정적이다. 옛 한국신문회관의 경우 언론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경영해 왔고, 그 과실을 각 언론단체에 배분하기도 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신문회관은 언론인의 전당 그 자체였던 셈이다.

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성병욱)는 1998년 4월 6일, 제 42회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한국신문협회(회장 방상훈) 한국기자협회(제 35대 회장 남영진)와 함께 한국신문회관 재설립 추진 결의문을 채택했다. 3개 단체는 결의문에서 “선배 언론인들이 각고 끝에 마련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한국신문회관’이 군사 정권의 힘에 밀려 소유권과 운영권을 빼앗겼다”며 “‘한국신문회관’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회관 재설립 추진위는 신문회관과 관련 세가지 안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프레스센터 건물의 소유권을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새로 설립할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으로 이전하는 방안, 또 정부가 새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해 재설립할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에 무상 기증하는 방안등이었다.

(8) 한국언론재단의 등장

언론인들과 언론단체들의 문제제기에 한국언론회관은 1998년 5월 7일 ‘언론회관 발전적 운영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총회에서 통과시켜 한국신문회관 재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듯했다. 또 6월 16일에는 ‘한국신문회관 재설립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위원들까지 선임, 한발짝 더

나아가는 듯 했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김문원(金文元) 프레스센터이사장과 남영진(南榮振)전 기자협회회장이 뽑혔다. 운영위원은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2명씩과 관훈클럽 프레스센터전무 문화관광부관계자 방송광고공사관계자 1명씩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했다. 실행위원으로는 남영진 공동위원장을 비롯 이천구(李天求)기협 사무국장 이상연(李相演)신문협회 총무부장 김종원(金鍾元)신문윤리위원회 총무부장 이재우(李在雨)관훈클럽 업무부장 프레스센터관계자 2명 등 모두 7명이 선임됐다.

그러나 한국신문회관 재설립은 이뤄지지 않은 채 한국언론회관은 1999년 1월 언론연구원 언론인금고 등과 통합해 한국언론재단으로 변신했다.

한국언론재단 정관(2006년 12월말 현재)에 따르면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4개 단체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도록 돼 있다. 또 문화관광부장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각 1명씩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3명 감사 1명 등으로 임원진이 구성돼 있다.

한국언론재단은 언론기관 인사들이 비상임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언론계가 한국신문회관 재설립을 추진하며 내세웠던 언론계의 프레스센터 자율 운영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문화관광부가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 임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4)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창설

신문윤리위원회 창설은 편협에 의해 이루어졌다. 편협은 1957년 4월 8일 제1회 신문주간대회 및 독립신문 창간 61주년 기념식에서 관료통제를 자초하지 않는 형태에서 신문제작 종사자의 자기규제 기준으로 신문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했었다. 그런데 1960년 4·19로 생겨난 권력의 공백기와 제2공화국시대에 접어들어 속출한 사이버언론과 사이버언론인의 발호는 마침내 언론계의 자체정화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1년 4월 5일 열린 편협 제6회 정기총회는 정화방안으로 신문윤리위원회 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 위원회 설치에 따르는 회칙 및 준칙으로 삼을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작성을 운영 보도자유 두 위원회에 맡겼다.

신문윤리위원회 창설은 표면상 편협과 발행인협회 대표로 구성된 창설 준비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주동은 편협이었다.

5) 한국신문연구소 설치

신문연구소 설치를 처음 발의한 사람은 고재욱(高在旭) 당시 편협 부회장이었다. 이 발의에 따라 편협은 홍鍾仁(洪鍾仁) 전 운영위원장을 설립준비의 책임자로 지명하고 1960년 4월부터 설치작업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4·19와 5·16 등의 격동기를 맞아 진전이 없었다.

편협은 1961년 4월에 열린 제6회 정기총회에서 신문연구소 설치안을 정식 결의했다. 이어 62년 4월 제7회 임시 총회에서는 연구소설치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홍鍾仁 설립준비위원회에 준비작업을 일임했다.

그 후 설립작업은 설립에 필요한 기금확보문제로 한때 난관에 부딪혔으나 1963년 3월 한국일보 장기영(張基榮) 사장, 동양통신 김성곤(金成坤) 사장, 동화통신 정재호(鄭載護) 사장 등으로부터 협조약속을 받으면서 설립 작업은 급진전, 1964년 4월 7일 연구소가 개설되었다.

6) 편협기금 설립

편협은 외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연례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기금을 마련, 1996년 11월 19일 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

금을 설립했다.

편협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각각 5천만원씩 출연한 1억원을 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법인을 발족시켰다.

한편 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은 1997년 1월 24일 편협기금으로 10억원을 기탁했다. 이로써 편협기금의 기본재산은 11억원이 됐다.

◇재단법인 편협기금 창립임원

△ 이사장=成炳旭(중앙일보 주필) △ 이사=李文熙(한국일보 주필) 金大中(조선일보 주필) 南仲九(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崔東鎬(KBS 부사장) 李昌雨(부산일보 논설고문) 李文鎬(연합통신 편집국장) △ 감사=崔圭永(한국경제신문 상무) 崔鐘鳴(강원일보 전무)

7)편협 로고 선정

편협은 편협을 상징하는 로고를 선정하고 1995년 12월 9일자 편집인협회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 로고는 동아일보 출판미술부 張鎬植씨의 작품이다.

張씨는 “신문에서 느끼는 시각 형태와 TV 브라운관의 사각형을 응용하여 신문 방송의 편집형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며 “태극 문양 등을 곁들여 편협이 한국 언론이 선구자임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8)40주년 대토론회 및 전시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1997년 4월 7일 (제 41회 신문의 날) 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21세

기 한국언론의 좌표'란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4월 7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한국프레스센터 1층 로비에서 '편협의 활동과 역할'이란 주제로 기념전시회를 가졌다.

대토론회는 한국 언론의 미래, 언론의 책임, 남북문제와 보도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한국 언론의 미래는 현업(언론계)에서 전망했으며, 언론의 책임은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남북문제와 보도에 관한 주제는 정부 측에서 발제하고 함께 토론했다.

주제와 주제별 발표자, 사회는 다음과 같다.

- ◇ 제1주제=멀티미디어 시대의 한국 언론-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언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발표=印輔吉(디지털조선 사장) △사회=이영일(편협부회장 KBS보도제작국장)
- ◇ 제2주제=언론의 책임-언론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발표=劉載天(한림대 교수) △사회=鄭逸和(편협 국제위원장 한국일보 논설위원 겸 통일문제연구소장)
- ◇ 제3주제=남북문제와 보도△발표=金錫友(통일원 차관) △사회=도준호(편협 남북교류위원회 조선일보 대기자 부국장)